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암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2003년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12주년을 맞으며

교회를 통해 받은 영적 은혜를 감사하자

-고난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자 되어야-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감사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한 해 동안 물 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은혜도 크고 놀라웠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도 감사해야겠지만 서울교회가 받은 은혜를 더욱 감사합니다.

빈손을 들고 12년 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엎드려 울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논현동 6층 다락방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공물을 구했고 눈물을 뿌리면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더니 반포동 교회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대치동에 서울교회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로 파이프오르간 봉헌식과 8대 장로 임직식으로 감사할 것이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수십년 동안에도 이루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을 12년 만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아직은 미진하고 온전치 않으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뻐하며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를 어찌 다 감당할까요?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을 슬퍼하고만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땅 속에 묻힌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눈앞에 전개되는 새 세계의 손짓을 바라보면서 한숨 대신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하고 실의와 좌절 대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개척자의 환희와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건국공신이나 개신장군처럼 착각하고 논공행상을 바라는 이가 있듯이 우리 중에 흑이라도 특대를 받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감사해야 할 감사보다 자신은 천대를 받고 있다고 원망하며 뒤로 물러가 있는 이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성군 다윗은 국토를 확장하고 국위를 사해에 선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지만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후대를 받고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빛진자로서 이 복음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되었다고 불평하는 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므로 모든 일을 축복으로 변화 시켜야하고 모든 날들을 찬송의 날들로 만들어야하며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을 천국화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감사절에는 우리가 받은 작은 축복이라도 감사해야 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벌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설립 12주년 기념 주일

미군 장병 초청 11월27일(목) 저녁 7시 801호

추수감사절예배 · 파이프오르간 봉헌예배 · 장로임직식

오늘은 우리 서울교회 설립 12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이다.

서울교회 설립을 허락하시고, 국내의 선교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잔칫날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감사하기 위해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갖는다. 또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파이프오르간 심포지움을 개최한데 이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파이프오르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과 그동안 훈련을 받아오던 8대 장로 피택자 6명이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게 된다.

이 영광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 아니라 더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한다.



우리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군장병(기독교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미군 장병들은 27일(목) 저녁 7시 우리교회 801호 만나홀에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된다.

초등부 달란트 잔치

-10시30분 한티공원에서-

초등부는 오늘 10시 30분 한티공원에서 달란트 잔치를 벌인다. 교회설립12주년을 감사하며 그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바란다.

장로임직을 축하하며

하늘의 별을 따십시오



김광신 장로(당회서기)

장로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할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장로 직임을 감당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되지 못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

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통곡과 아픔과 겸손과 수고와 헌신을 요청하십시오.

니다. 그것들에 동의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때 장로역할은 시작될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 인수 받을 때의 그 심정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단단히 마음먹어야 합니다.

먼저 된 자의 입장에서 아직도 부족을 느끼고 미안하고 모자라는 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에 더 가까워야 하고 기도와 봉사 지도력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하면 공부 안하는 자가 대다수입니다. 장로 되고 공부를 안하면 더 고생이고 더 힘들게 됩니다. 평생 자기 성숙에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사랑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과 뜻과 정성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훈련과 현실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됨의 감격은 순간적이고 장로로 사는 것은 평생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생의 설계를 지금부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들의 경험도 들어보고 본인의 삶을 통해 직접 체험하여 가장 모범적인 장로 상을 꾸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장로의 겸손이 지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뜻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좋은 곳으로 항상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늘의 별을 따시게 될 것입니다.

새로이 임직하시는 장로들과 그 돕는 배필에게



이윤선 장로(원로 장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수시로 내 신앙양심에 경고음을 울려주곤 합니다.

네 생각과 언행이 매사에 신실한가? 라는 질문에 대답은 한결같이 '너는 간사했고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다.' 라는 책망의 음성뿐이었습니다.

나다니엘이 부럽습니다.

인간이란 자기가 간직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성취해 주기를 바라는가 봅니다.

제가 덕행이 부족하기에 후배 장로님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고 싶은 심정이 간절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는 장로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몇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참된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면서 창립되었고 많은 교회 중의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목적을 두시고 이 시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세워주셨기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또한 막중함을 명심하시고 복음을 위해 충성함으로써 장로의 품위를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이오 장로를 존경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였던 가이오 장로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한몸에 받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당회장 이종윤 목사의 '하나님 목회'에 선배 장로님들과 한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진리 안에서 충성함으로써 서울교회가 하나님

께 영광 돌리는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장로님들이 가이오실을 출입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헌신하고 있는지를 자문하시면서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 하는 간사함을 부단히 제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시무장으로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순봉 권사

하나님의 종으로 남편이 신실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 드리면서 오히려 나로 인해 남편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복음전파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 과연 나의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서 각별히 언행에 조심하며 남편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그늘진 곳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이루지 못하고 늙고 말았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시무장로 부인으로서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잠 31:10)이 되시고 일어나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임직을 받으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람이 따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1~2)

박두영 집사

전행자 권사



절대주권을 갖고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때에 가장 낮고 어린자를 축은 히 여기서 장로로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심을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섬김의 도리를 감당하기를 원하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당회원들의 고견을 받들고 장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가이오'와 같은 장로가 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성도님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울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좋은 장막을 주시고 몸된 교회에 자유로이 출입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가장 연약한 자를 충성되이 여기서 인생의 황혼기에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는 장로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 동역자(내조자)가 될 것이며 믿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롬(모든 것의 가장 좋은 것)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정선 집사

김남순 권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못한 죄인을 어디에 쓰시려고 장로로 피택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또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직분자로서 이기심을 버리고 주는 사랑(Giving Love)을 본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모든 저의 각오와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며 힘과, 용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 가정을 이룩한 주님의 사랑으로 일꾼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결순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부지런한 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장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남편을 내조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섬김의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인 장로

최소의 권사

봄이 무르익는 5월 하순부터 시작된 당회와의 교육이 어느덧 초겨울 문턱에 들어선 11월 중순이 되었고 그간에 직장파 교회와 이동거리는 서울과 부산을 아홉번 왕복하는 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고가며 교육받으며 모든 하는 일과 때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베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위에서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그동안에 교육을 위해 노력을 다하신 교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로로 임직하면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밑에서 서서 겸손할 때에 남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결순한 마음으로 장로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기도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남편을 사랑하여 주셔서 장로로 취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남편을 잘 내조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며 장로님으로서, 목회자로서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신 나의 시조모님과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시댁의 중장질 며느리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신 나의 친경어머니의 선구자적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남편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나님의 말씀을 이루려함이라!



진기섭 장로

장로의 직분은 너무나도 고귀한 자리이기에 두려움이 앞서지만, 먼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주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몇가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첫째,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곧 교회 사랑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되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혁주의, 복음주의가 진리의 노선임을 믿고 이를 견지하도록 노력하며 "기도만능"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셋째, 자기개발(啓發)에 게으르지 않으며 끊임없이 공부하겠습니다. 음식은 거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행일치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는 대로 행하고 아는대로 실천하여 성도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을 절제하되 나 자신에 대한 자랑이나 임석(臨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말은 되도록 삼가하겠습니다. 또 자기관리에 철저하며 시간과 물질에 대한 절제의 삶을 살겠습니다.

원영에 집사

주님만이 삶의 가치기준이 되며 삶의 목적이 되도록 기도과 말씀에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주님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정결하고 순전하게 기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 품안에만 안주하겠습니다.

교회와 이웃 앞에서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늘 섬기는 자세로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 예배와 모임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겠습니다.

자손만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되신 서울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복되고 가치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변치 않도록 나 자신을 평생 주님 곁에만 묶어두겠습니다.

조정식 집사



한국교회의 갱신과 세계 복음화 산실이 되는 서울교회에서 이중운 목사님을 모시고 작은 자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파이프 오르간 봉헌식과 장로 임직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섬김의 위치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루를 시작하며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협력하고 섬기며 가이오 같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식 집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피택자의 동역자로 6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연합이 성숙함으로 다듬어지며 하나님만을 최고의 삶으로 온전히 변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육에 임했습니다. 남편의 임직을 앞두고 저희 부부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주야로 부지런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서울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헌신을 다짐합니다.

김신영 집사



신영식 집사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피택자로 교육과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교회의 방관자로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새로운 자세로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모습으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서, 때사에 주님의 뜻에 따른다는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직분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지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며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인 것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갖도록 노력하며, 영육간에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며, 성경말씀을 잘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며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남편을 부르셔서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겸손과 사랑을 가훈으로 모가나고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교회와 이웃을 생각하며 다듬어지는 인격체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기도하며 모든 일에 남편의 동역자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신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에 덕이 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항상 기쁨으로 내조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온전히 사랑으로 하며 일만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는 열매 맺는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울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으며

우리의 잔이 넘쳐나이다



오정수 장로(9교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12년 세월, 강산은 변했는지 모르나 서울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은 12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는현동에서 반포동으로, 그리고 대방의 대치동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봉헌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울교회의 12년 세월은 성도 여러분 모두의 팔과 수고와 헌신으로 점철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시대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주도한

서울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우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축복을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으셨습니다.

변질되는 진리를 바라보며 가슴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리스도의 남기신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심정으로 묵묵히 돌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시간들. 돌이켜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지표가 되는 서울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그렇게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앞장서신 이종운 담임목사님과 부족한 당회를 믿고 따르며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기에 서울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우

뚝 서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 여름 소천하신 박철훈 장로님과 이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보시는 쟈 발걸음, 얼굴 가득 머금은 사랑스런 미소가 무척이나 그리웁습니다. 가시는 그날까지 그토록 주님의 몸되신 서울교회를 사랑하신 박 장로님께서도 지금이 시간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실 것입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더욱 깨어 기도합시다!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힙시다!

12년간의 세월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서울교회여!

사진으로 보는 12년전 서울교회



눈물로 기도하며 청립을 준비하다



91년도 첫 주수감사절



대치동 시대의 새 예배당



청립예배를 드리며-논현동 시대의 개막



반포동시대의 첫 주수감사절과 장로임직식을 마치고



김장하던 날 (논현동시대)



삼척에서 가진 전교인수련회



▶ 첫 교회학교 졸업식

교회설립12주년을 감사하며

서울의 빛

운영남 집사 (6교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직 주님의 팔꿈치 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의 중심으로
세기등 세웠나이다.

하나님을 가쁘시게 하소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달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사랑의 절질을 벗기시는 날이시여!
육체의 절질을 벗을 때 드넓은 세계가 보이듯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착각 속
알맹이였나이다.

일순간 깨신으로 치달는 광경도
지축을 흔들었던 삶의 광풍도 한 말씀 뿐
"내가 너의 사랑의 절질을 벗기겠노라"

등산 위 등경이게 하소서
잔솔까지 끝에서 들어드는 바람도
말이 없는 빛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날이시여!

대상이 없는 그림자가 없듯이
사랑이 없는 마음은 썩트지 않게 하소서
큰 빛으로 은 누리에 할창소리 퍼지게 하소서

모든 섬김의 으뜸이요, 열매가 되시는 날이시여!
내가 오르던 마루바다의 통곡을 한 줄기 기도로
작발한 지도자의 외침은 흥해를 건너는
행군의 나팔로

열두 살의 소년처럼 소망의 빛을 품게 하소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계시를 빛으로 남기게 하소서
참사랑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서울의 빛으로
남기게 하소서.

파이프 오르간 봉헌예배 드림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īs Domine"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미경 성도



먼저 부족한 제가 서울교회 '오르간 봉헌식'에 오르간 봉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봉헌식 때 연주할 곡은 블란서 작곡가, Jean Langlais (1907-1991)께서 1946년에 미국에서 작곡하신 "Fete"입니다. Fete의 뜻은 Festival-축제입니다.

이 제목과 같이 저는 서울교회의 교회설립 12주년과 장로 임직식, 그리고 오르간 봉헌식을 축하하며 이제껏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서울교회를 향한 사랑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곡을

선택하였습니다.

Jean Langlais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르간 곡과 할창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이 곡은 "The Modern Anthology"(현대곡 선집)을 위해 작곡되었고 H.W.Gray Company 출판사가 출판한 한 곡입니다. 또한 이분은 저의 선생님이신 Dr. Gere Hancock의 스승님이기도 합니다.

서울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오르간 봉헌식에 함께 참여하게 됨을 다시금 고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르간 심포지움현장에서

초겨울 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천상의 소리



Dr. Gere Hancock과 Dr. Edward Zimmerman교수

4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친 파이프 오르간이 지난 9월 말 완성이 되고 그간 시험 가동을 하다가 오늘 봉헌식을 갖게 된다. 우리교회는 봉헌식에 앞서 어제의 그제 이틀에 걸쳐 국제 오르간 심포지움을 열었다.

이중순 목사님은 심포지움을 시작하기 전 경건회에서 예배소서 5:18 - 21절의 말씀을 주시며 "성도는 마땅히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야 할 것이며 서울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봉헌하므로 바른 예배, 경건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됨을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셨다.

이런 심포지움에는 줄리아드 음대 교수이며 뉴욕의 St. Thomas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인 Dr. Gere Hancock과 우리교회 오르간 제작에 자문을 담당한 미국 Wheaton 대학의 오르간 교수인 Dr. Edward Zimmerman, 연세대학교 음대 오르간 교수인 광동순 박사와 미국 Ypsilanti First Presbyterian 교

회의 음악 감독 및 오르가니스트인 이미경 박사, 그리고 우리교회 오르간을 제작한 크라이스 회사의 사장인 Phillip Klais가 강사로 수고하였다.

심포지움은 파이프 오르간의 이론과 더불어 오르가니스트와 회중이 함께 하는 찬양 축제와 즉흥 연주 세미나, 음대생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저녁에는 양일간 계속 리시타일이 열려 천상의 소리가 초겨울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심포지움을 하며 첫 날 축사를 하신 한국 오르가니스트협회 이사장인 백금옥 교수는 서울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한국교회 음악의 활성화와 바른 교회 음악의 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임을 확신한다며 봉헌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심포지움을 가지므로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들과의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서울교회에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한국의 파이프 오르간의 역사를 강의한 광동순 교수는 오르가니스트의 목표는 예배의 인도자로서 오르간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일이며 서울교회의 오르간이 한국 오르간과 교회음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오늘 봉헌식에서는 Dr. Edward Zimmerman이 서곡(Prelude)을, 이미경 박사가 Jean Langlais의 "Fete"로 봉헌 연주를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허숙 (편집부)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4일(목) 발골라레시 바포이 선교사를 만나 선교확장 협의차 출국하여 25일(금)에 귀국한다. 오영수 장로가 대동한다. 또한 24일(목) 비전2020운동 사업자간사예배를 주관한다.
- 이사: 하영숙 성도 - 대치3동 579-4 한강벨리211호 Tel: 552-8836
- 민병관 집사 - 재경숙 집사 - 대치4동 풍림아파트 102-101 Tel: 564-2064
- 김현영 집사 - 최현인 권사 -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 13-103호 Tel: 575-0509
- 개업: 김재철 성도 - 장영순 권사: 을사길 '블랙' 대림2동 우성교회 옆
- 금주인 식사: 홍승권 집사 - 황정인 권사가림 (무모빌 광혜를 은혜중에 마치고)
- 김현용 · 왕인호 성도(7차의 결혼식을 마치고)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Y 106.9M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케이블 CH 42 금 오후 7시
- 기독교 방송 위성 TV CH 162 수 오전 7시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일년내내 지속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오르간 봉헌식과 장로 안수식을 크게 감사케 하소서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